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

새로운 희망으로 시작한 戊子年의 봄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기쁨과 설렘이 가득한 이 계절에, “Health & Mission”의 지면을 통해 한국 가톨릭 의료협회 가족들과 만나 뵙게 된 것을 하느님의 소중한 선물로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 권두언이 한국 가톨릭 보건의사목 담당 주교로서 임명받은 후, 공식적인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커다란 기대와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다양한 가치와 급속한 변화의 21세기를 살면서, 종교적 사회 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 활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가톨릭 병원과 의료인의 이념에 있어서도 커다란 도전과 위협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가톨릭 의료협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발족한 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2005년 3월에 발족한 한국 가톨릭 의료협회는 가톨릭 병원협회, 가톨릭 의사협회, 가톨릭 간호사협회, 가톨릭 약사회 등의 직능 단체가 연합한 종합적인 가톨릭 의료 인프라로서, 국내 저소득 계층을 위한 의료 지원 사업, 국내·외 재난 지역 의료 지원 사업, 개발도상국의 저소득



김운회(루카) 주교
천주교 서울대교구

층을 위한 해외 의료 지원 사업, 대북 의료 지원 사업 등의 다양한 의료 복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본래의 설립 목적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존귀한 사명에 부름 받은 여러분은 항상, 치유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행동을 본받는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전 생애를 통해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게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포는 병들고 고통 받는 사람을 향한 치유 기적으로써 자주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기적은 단순한 질병의 치료가 아닌, '전인적인 의미의 인간 사랑'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의미의 의료 활동은 현대의 의료 지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톨릭 의료인에게 있어 의료 활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하나의 사명입니다. 즉, 여러분의 의료 활동은 無言의 복음 선포로서, 이 세상에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의료 활동 하나 하나는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지향하는 하느님 자신의 役事라는 사실을 항상 견지해야 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님께서서는 2008년도 서울대교구 사목 교서 “가정은 생명의 터전”을 통해, 인간 생명의 존귀함과 가정 공동체의 소중함에 관해 가르치고 계십니다.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현대 사회의 도전 앞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생명과 가정 공동체를 존중하고 수호하는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생명을 수호하는 사람으로서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당신의 도구로서 부르셨습니다. 모쪼록 2008년 한 해도, 여러분의 의료 행위를 통하여 그분의 부르심에 성실하게 응답할 수 있는 용기를 청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일상을 통해 세상에 전하는 의료 행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기쁨을 항상 체험하기를 희망합니다.

戊子年 한 해, 그리스도 예수의 기쁨과 희망이 한국 가톨릭 의료협회 가족들과 함께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 기원회

“... 너희는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
를 차지하여라 ... 너희는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
으며 ...”(마태 25,34~36)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서는 1992년 10월 21일에
발표된 제 1차 세계병자의 날 담화문에서 세계병자의 날
을 제정하게 된 동기와 취지를 설명하면서, 특별히 사제
들과 교회 공동체 내의 여러 구성원들, 자원 봉사자들,
그리고 보진 사목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계병자의 날’ 이 시련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향
한 봉사의 길을 새로운 헌신의 마음으로 추구해 나가도
록 하는 기회가 되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최영식(마티아) 신부
한국가톨릭의료협회 회장
가톨릭중앙의료원장

루르드의 성모발현 150주년이 되는 올해 ‘제16차 세
계병자의 날’, 가톨릭계의 크고 작은 의료기관과 복지기
관 등에서는 각기 9일 기도를 하며 정성들여 준비한 병

자의 날 행사를 하였고, 또 한국가톨릭의료협회에서 주최한 병자의 날 행사는 대구 가톨릭대학병원에서 주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준비한 이 행사가 가톨릭 신자로서, 의료인으로서, 또 하느님 나라를 위한 봉사자로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시련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봉사' 임을 잊지 않도록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협회는 가톨릭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연대 속에서 회원병원과 단체들에 속한 모든 이가 가톨릭 의료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근본적인 존재의 이념과 목적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이번 봄 호 협회지에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뇌와 영적인 질병도 함께 돌볼 수 있는 임상사목교육에 대한 특집을 마련하였습니다.

생명을 수호하는 첨단 의료 기술과 수준 높은 의료진

의 정성스러운 치료가 전인치료의 외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면, 임상사목활동은 치유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드러내며 치유의 내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원목의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아직 우리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전문적 임상사목 활동이 육체와 정신, 그리고 영적인 건강을 모두 살피 주셨던 치유자 예수님을 본받으려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협회에서 행하는 모든 활동과 이 협회지가 전국에 있는 가톨릭 의료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나눔터가 되기를 바라며, 회원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풍성히 내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최영식